

「경주가 끝난 뒤」에서의 피식민지인의 가면의 삶

민 태 운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단편 「경주가 끝난 뒤」(“After the Race”)는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비평가들에 의해서도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조이스는 이 작품이 1904년 12월 17일 처음으로 출판되었을 때 만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 3년이 지난 후에도 수정하고 싶어했다고 한다(Bowen 53).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략 조이스가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더블린의 신흥 부자들이라든지 국제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들 한다. 사실 조이스는 그가 잘 알고 있는 중하류층의 더블린 사람들을 묘사할 때는 천부적 솜씨를 잘 발휘했지만, 자동차 경주대회에 대해서는 프랑스인 자동차 경주선수를 인터뷰해서 『아이리쉬 타임스』(Irish Times)에 실은 것이 그의 경험의 전부였다. 조이스는 1903년 더블린에서 열린 제임스 고든 베넷 컵(James Gordon Bennett Cup) 경주에 출전하게 되어 있던 빠리의 자동차 딜러이자 자동차 경주 선수인 앙리 푸니에(Henri Fournier)와 인터뷰를 했고 이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다음 해에 이 이야기를 썼다고 한다. 하지만 스탠니스러스 조이스(Stanislaus Joyce)에 의하면 조이스는 푸니에가 어떤 차종을

안전하게 될지도 몰랐고 시속 86마일이 “섬뜩하게 하는 속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동차 경주에 대해 무지했다(225). 뿐만 아니라 조이스는 더블린에서 열리는 경주에 참석하지조차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동차 경주가 다른 이야기들의 소재와 달리 생동감 있게 묘사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인공인 지미 도일(Jimmy Doyle)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리얼리스틱한 묘사라든지 식민지인 아일랜드의 현실을 역사적 배경과 연결시킨 주제의 제시, 그리고 상징의 사용 등에서 조이스의 재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 논문은 이 이야기에 대한 일반적인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조이스가 얼마나 날카롭고 세밀하게 피식민지인으로서 지미가 영위하고 있는 가면의 삶을 재현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제목(“After the Race”)이 함축하는 의미부터 살펴보자. 첵(Vincent J. Cheng)의 지적대로 “Race”는 “경주”라는 뜻 외에 “인종” 및 “국가”를 가리키기도 한다(103). 따라서 이 이야기는 피상적으로는 자동차 경주에 대한 것이지만 인종 혹은 국가들 간의 경쟁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국적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자동차 기업가인 프랑스인, 프랑스계 캐나다인,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영국인, 피아니스트인 헝가리인, 그리고 요트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 등이 마치 국제 사회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듯하다. 또한 제목 중의 “After”는 “완료”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기, 게임, 혹은 경쟁이 이미 끝나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야기는 자동차 경주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일랜드가 이미 제국에 종속된 식민지라는 것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들은 유럽 다른 나라 민족들과의 우열 경쟁이란 이미 끝난 게임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것은 지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는 요트에서 카드 게임을 할 때에도 자신이 질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그는 가면을 씌으로써 자신의 열등한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쓸 뿐이다.

이야기의 첫 단락은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경주용 차들이 골인지점을 통과한 후 들어오고 있는 장면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

자동차들이 네이스로(路)의 바퀴자국을 따라 총알처럼 일직선으로 달리며 더블린을 향하여 질주하여 왔다. 인치코어에 있는 언덕 마루에는 차들이 빠른 속

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구경꾼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고, 가난과 마비의 이 도로를 통해 유럽대륙이 자신의 부와 산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었다. 모여있는 무리들은 때때로 기꺼이 억압받는 자들의 환호를 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푸른색의 차들, 그들의 친구들인 프랑스인들의 차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D 42)

여기서 자동차는 유럽대륙의 “부와 산업”을 상징하고 관중들이 늘어 서 있는 네이스로(路)는 아일랜드의 “가난과 마비”를 나타낸다. 사람들은 차에 (그리고 아마 그것이 나타내는 나라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D 45) 모여든다. 따라서 아일랜드 사람들을 “기꺼이 억압받는 자들(the gratefully oppressed)”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된 열등한 위치를 감지되지하면서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쉐의 관점에서 이것은 피식민자들이 식민자들의 가치관을 내재화하여 식민자들의 활약을 찬양하고 “합의상의 노예들”이 되는 것과 다름 없다(105). 대부분의 아일랜드인들은 이제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처지를 인정한다. 그들은 경쟁 / 경주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민족들의 승리에 박수까지 보내며 환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꺼이 억압받는 자”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닌 프랑스 사람들에게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오랫동안 프랑스 사람들을 그들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해방자들로 생각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인들에 의한 아일랜드인들의 해방은 물론 엄밀히 말해서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스튜어트 왕가(Stuarts) 시대, 특히 윌프 톤(Wolf Tone)의 시대 이래로 아일랜드 사람들은 프랑스인들을 유력한 해방자들로 생각해 왔다. 프랑스인들은 1690년대와 1790년대에 아일랜드인들을 해방시키는데 실패하였는데 이제 다시 100년이 지난 후를 다루고 있는 「자동차 경주가 끝난 후」에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지 모른다. (Bowen 57)

이러한 맥락에서 이 이야기는, 토르치아나(Donald T. Torchiana)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듯이, 1798년에 있었던 캐슬바의 경주(the Races of Castlebar)를 상기시킨다(81). 프랑스군이 아일랜드에 들어와서 아일랜드의 농민들에게 군복과 무기를 나누어주고 차츰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마침내 프랑스-아일랜드 연합군은 캐

슬바에서 막강한 영국군을 패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때 영국 패전 병들은 사실상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처럼 재빠르게 전쟁터로부터 출행량을 쳤다. 하지만 연합군의 승리는 오래 가지 못하여 곧 영국군에게 항복하게 되었다. 이때 영국군은 프랑스 포로들은 잘 대접해 주었지만 아일랜드인들은 그 자리에서 대량 살상하였다. 한편 모든 프랑스 포로들이 더블린으로 호송되어 왔을 때, 수천의 더블린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환영하였다고 한다. 아일랜드인들은 이처럼 과거에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의 연장선상에 서서 지금 그 때의 역할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자동차의 속도로 특징지어지는 유럽대륙은 동적이고 남성적인 반면 가만히 서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대표되는 아일랜드는 정적이고 여성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일랜드가 옛적부터 “가난한 노파”(poor old woman)로 묘사되어 왔고, 특히 식민지가 된 후에는 남성적인 대영제국과 대조적으로 수동적인 여성으로 재현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세기에 르낭(Ernest Renan)과 아놀드(Matthew Arnold)는 각각 아일랜드 사람들에 대해 “본질적으로 여성적인 인종(essentially feminine race, 8)”이라느니 “여성적인 데(something feminine, 86)”가 있다느니 하면서 아일랜드 민족을 가부장적인 ‘남성적’ 앵글로 색슨족과 대조시켜 여성적인 존재로 특징지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화는 그 당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여성적인 아일랜드는 통치할 능력이 있는 가부장적인 영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지미는 유럽의 남성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자신이 남성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특히 자동차 경주나 카드놀이 같은 남성적인 경기 혹은 게임의 참가자들과 어울림으로써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경주가 끝난 뒤」는 장소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야기의 주요 장면은 각각 경주용 차에서, 세구앙의 저택만찬에서, 그리고 미국인 팔리(Farley)의 요트에서 일어난다. 각 장면에서 지미의 감정은 한결같이 지나치게 고조되고 그 장면이 끝남과 동시에 환상에서 벗어나 냉정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어지러운 정도로 빠른 경주용 자동차를 타고 난 후 땅에 내렸을 때 느낄 수 있는 기분과 같을 것이다. 첫 번째 장면에서 지미는 그의 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매끄럽게 만들어진”(D 42) 자동차를 타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에는 너무 흥분되어 있다”(D 43). 차는 그에게 “초인간, 구세주” 같은 것을 가리킨다(Bowen 58). 그가 우쭐대게 되는 것은 자동차의 속도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유럽

대륙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그의 많은 친구들이 보았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그가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의 흥분을 북돋운다. 그는 더블린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마비의 상태와 대조적으로 속도를 향유할 뿐만 아니라 부유한 유럽친구들과 같은 차에 타고 있음으로써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같은 범주에 속해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 그것은 「애러비」(“Araby”)의 소년 주인공이 “애러비”에 대해 품는 환상과 유사할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지미는 실제로 환상적인 자동차를 타고 유럽대륙 인들과 어울려 다녔지만, 「애러비」의 소년은 자신의 꿈을 “애러비”라는 개념에 투사했을 뿐 그런 환상적인 장소에 있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둘 다 더블린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따라서 그가 집에서 저녁 만찬에 입을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헝가리인 빌로나(Villona)와 함께 경주용 차에서 내렸을 때 느끼는 “이상한 실감감”(D 45)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단순히 기계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흥분과 쾌속, 환희로부터 빠져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차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는 차의 빠른 속도에 자신의 신경조직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느낀다. “[자동차] 여행은 삶의 진정한 맥박 위에 마력적인 손가락을 갖다 대었고 인간의 신경조직은 신속한 푸른 동물[차]의 질주에 대담하게 반응하려 안간힘을 썼다”(D 45). 그래서 인지 작품 전체를 통해서 그는 마치 자신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이기라도 하듯 차분한 마음을 보여주지 못한다. 보웬(Bowen)이 지적하듯이, 대부분의 『더블린 사람들』(*Dubliners*) 이야기들에서 서술적 어조는 각 이야기의 중심 인물의 마음의 상태와 일치한다(56). 예를 들면, 「진흙」(“Clay”)의 어조는 주인공 마리아(Maria)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여 순진무구하고 유화적인 반면 「대응」(“Counterparts”)의 어조는 패링턴(Farrington)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여 거칠고 난폭하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의 어조는 주인공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듯 숨가쁘고 흥분되며 법석대는 것이다.

이처럼 흥분된 상태에서 지미는 자신이 유럽대륙 인들과 같은 부류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애쓴다.

두 사촌은 앞좌석에 앉았다. 지미와 헝가리 친구는 뒷자리에 앉았다. 빌로나는 의심할 여지없이 기분이 좋은 상태여서 차가 수 마일을 달려오는 동안 계속

저음의 베이스로 콧노래를 불렀다. 프랑스인들은 웃음과 가벼운 말들을 어깨 너머로 던졌고 지미는 자주 그 재빠른 낱말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했다. 이것이 그에게 유쾌한 일만이 아니었던 것이, 그는 거의 항상 재치 있게 그 의미를 추측해내어 바람이 세게 부는 앞쪽을 향해 적절한 대꾸를 큰 소리로 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D 44)

지미는 자신이 유럽 대륙인들과 같은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싶어하지만 그와 프랑스인들 간의 거리는 분명해 보인다. 프랑스인들이 가벼운 농담을 부담 없이 던지는 데 반해 지미는 그들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적절한” 대답을 해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서 “적절한” 말이란 지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올바른 말이라기 보다는 프랑스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일 것이다. 레너드(Garry M. Leonard)도 지적하듯이, 지미는 “그의 대답이 지적이거나 채치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보다는 그들의 말을 돋보이게 뒷받침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고심한다(114).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들의 인정을 받고 자신의 허구적인 이상적 자아를 획득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은 세구앙이 프랑스인 경주 참가자 한 명을 그에게 소개시켜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D 44)을 겪자 당황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황송하여) 얼버무리듯 그에게 인사를 한다. 반면에 그 프랑스 선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여유 있게 가지런히 빛나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을 뿐이다. 프랑스인들의 “웃음과 가벼운 말” 그리고 이를 드러내 보이는 웃음은 지미의 긴장되고 당황한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그것은 지미가 반드시 이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고, 그들이 그로부터 관심을 철회했을 때, 즉 그에게 농담을 던져주거나 웃어주지 않을 때 그의 허구적 자아도 허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일랜드인의 열등의식”(Beck 130)을 노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지미에 대해서 러나드는 그가 유럽대륙인들 사이에서 “가면극에 참가하고 있다(masquerade)”라고 진단한다(115). 환상적인 극의 참가자인 그에게 아일랜드 관중들은 “세속적(profane)” (D 44)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는 자신이 잠시 서 있게 된 무대가 현실의 삶의 영역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그는 마치 종교적이 체험을 한 사람처럼 유럽대륙 인물과의 어울림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된 듯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집단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

바심을 보이는 것은 지미의 아버지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아들이 유럽 대륙인들의 만찬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보며 지나치게 설레어 있다.

지미의 집에서는 이 만찬이 경사로 받아들여졌다. 원지 모를 자부심, 그리고 제 멋대로 행동해보고도 싶은 원지 모를 열망이 그의 부모의 떨림과 뒤섞여 있었다. 왜냐하면 외국의 대도시 이름에는 최소한 이러한 마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미도 옷을 차려 입자 매우 근사해 보였고, 그가 현관에 서서 넥타이의 나비매듭을 매만지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금전으로 쉽게 살 수 없는 것을 아들에게 확보해 준 것에 대해서 상업적으로도 만족감을 느꼈는지 모를 일이다. (D 45)

부모는 아들이 강대국 사람들과 나란히 선다는 생각에 떨리면서 자부심을 보이는데 이것은 앞서 살펴본 긴장된 지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프랑스인들이 지미를 당황하게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대도시 이름”은 그의 부모를 들뜨게 만든다. 한 때 민족주의자 진영을 기웃거렸던 아버지는 이미 외국의 “마력”에 굴복한지 오래다. 그의 이러한 마음은 “제 멋대로 행동해 보고 싶은 원지 모를 열망”(a certain eagerness ... to play fast and loose)에서도 엿보인다. 잭슨(John Wise Jackson)의 해설판에 의하면, “fast and loose”는 “오래된 속임수 게임의 명칭”(37)이기도 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조이스가 이 글을 쓸 당시에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의 논쟁이 있었고 시골 / 민족 / 지방 / 도덕과 도시 / 세계 / 부도덕의 이분법적인 공식이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아일랜드 민족을 상징하는 농부의 선(善)은 영국 등의 물질주의적 악(惡)과 대조가 되었고 세계주의자들(cosmopolitans)은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다(민태운 93-95). 「작은 구름 한 조각」(“A Little Cloud”)에서 찬들러(Chandler)가 빠리를 부도덕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논다는 것은 지미의 아버지에게 더블린의 억압적인 도덕성을 벗어나 “제 멋대로” (“무분별하게” 혹은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암시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보헤미안”적인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블린을 벗어나지 못하고 “금욕적인” 찬들러(D 80)가 부러워하는 것은 런던이라는 대도시에서 보헤미안적인 삶을 사는 갤러허(Gallaher)이었다. 지미의 아버지는 민족주의자의 허울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반대편에 있는 세계주의자가 되고 싶

어하는 열망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지미는 아버지의 열망을 실행에 옮겨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결국은 사기극의 의혹이 있는 카드 게임을 통해 많은 돈을 잃게 된다. 그 사기극도 “외국의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에게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지미는 세구앙이 주최한 만찬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고 극찬한다. 파티에는 지미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세구앙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던 영국인 라우쓰(Routh)가 참석한다. 지미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국인의 안정감 있는 태도와 프랑스인들의 젊은 생동감이 서로 얹혀서 “우아한 이미지”(D 46)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실상 그가 이 두 덕목 중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간절히 획득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가 떠올린 그 우월한 이미지는 그가 목표로 삼고 있는 영국 및 유럽대륙 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그는 능란하게 대화를 유도하는 세구앙의 “재주”(D 46)에 감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유럽 대륙인의 미화 혹은 이상화는 또한 지미 자신이 그들의 세계에 속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설정한 것은 지미의 아버지가 먼저였다. “진보적인 민족주의자”(D 43)로 출발했던 아버지는 젊어서 가치관을 이념적인 것에서 상업적인 것으로 바꾼 후 정육점 주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었다. 그의 변신은 한때 민족주의자로서 그의 적이었을 경찰과 계약하여 그들에게 고기를 납품했다는 데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푸주한이라는 밑바닥 직업으로부터 “호상(豪商, merchant prince)”으로 불리어질 정도로 부유한 자의 지위에 올랐다. 누구보다도 가파른 사회적 신분의 상승을 경험한 그는 아들만큼은 그가 꿈꾸어왔지만 가져보지 못한 사회적 신분을 젊은 시절부터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영국의 학교에 그리고 나중에는 캠브리지 대학에 보냈다. 그것은 아들이 “세상을 좀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D 43)이었는데, 이는 아들이 피식민지인으로서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친영파로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영국 유학 후 보낸 학교도 영국이 세운 더블린 대학교, 즉 트리니티 칼리지이었다. 아버지는 지미가 유럽대륙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들과 같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다. 지미가 “사귄 만한 가치가 있는”(D 43) 사람인 세구앙—이런 가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의 아

버지도 동의했다—을 만난 것도 그 대학에서였다. 따라서 지미가 파티에 가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그럴듯하게 보였을 때 “아버지는 금전으로 쉽게 살 수 없는 것을 아들에게 확보해 준 것에 대해 상업적으로도 만족했는지 모른다”. 요컨대, 지미는 아버지가 살아보지 못한 환상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Leonard 113). 프렌치(Marilyn French)의 지적대로, 아버지는 아들이 “사회적 신분, 계층에 대한 그의 욕망”을 실현해 주기를 원하고 지미는 “현실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세상에 속해 있다는 생각에서” 즐거움을 찾는다(454). 그렇다보니 지미가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이라든지 그가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은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다.

지미는 만찬장의 “관대한 분위기에서” 민족주의라는 아버지의 “묻혀진 열정”이 자신 안에서 깨어남을 느낀다(D 46). 여기서 “관대한”(generous)이란 단어는 「죽은 사람들」(“The Dead”)의 끝 부분에 다시 나오는 것으로 자기 중심적인 게이브리엘(Gabriel)이 포용적인 눈물(D 223)을 흘릴 때 사용된다. 이 이야기에서 “관대한 분위기”라는 것은 억압된 민족주의도 포용될 것 같은 파티 분위기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제국이 그것을 억압해 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지미는 자신이 추구해 왔던 국제적 존재를 임시적이거나 향유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그 반대적인, 묻혀던 민족주의적 열정이 고개를 들고 나타난 것이다. 그는 영국인 라우쓰와 정치적인 논쟁을 하게 되고 마침내 둘 사이에 “개인적인 원한”(D 46)을 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른다. 그러자 노련한 세구앙이 인류를 위해 건배하자고 제의하고 의미심장하게 창문을 열어제친다. 그것은 지미를 환상과 묻혀진 욕망으로부터 현실로 깨우는 창문일 것이다. 어쩌면 세구앙은 식민지인의 현실을 잠시 망각하고 지배자인 영국인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미에게 식민지인으로서 종속적인 현실을 일깨우기 위해 창문을 열었는지 모른다. 그것은 앞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구앙이 지미를 내려주기 위해 차를 세웠던 곳이 1800년까지 아일랜드의 국회 의사당이었던 은행(Bank of Ireland) 근처였다. 지미가 환상의 차에서 내린 곳은 아일랜드에 더 이상 국회의사당이 없고 경제적 종속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수 있는 상징적 장소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곳에서 아일랜드 인들이 자국의 국회의원 대신에 외국인의 자동차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여들었다는 것은 더블린의 정치 경제적 식민 상태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날 밤 더블린은 사실과 다르게 (실제의 수도는 런던

이 아닌가) “행정수도(capital)의 가면”(D 46)을 쓰고 있다. 지미의 아버지의 “묻혀진 욕망”은 곧 그들 부자의 억압된, 묻혀진 삶을 가리키고 현재의 삶이 가면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더블린과 마찬가지로 그들 부자는 거짓된 우월감의 가면을 쓰고 있다. 특히 지미는 자신이 국제적인 젊은이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다. 한편 지미의 가면극에서 보조역을 맡기라도 한 듯이 기차역의 늙은 집표원이 지미에게만 특별하게 각듯이 인사를 한다. 그것은 아마 일행 모두가 떠들고 웃으며 흥분해 있었지만 지미의 감정이 가장 고양되어 있어서 혹은 가장 우쭐해 있는 기분이어서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그 집표원도 “기꺼이 억압받는” 다른 더블린 사람들처럼 영국 및 유럽대륙인들, 그리고 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라 여겨지는 지미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은 미국인 팔리의 요트에서 일어난다. 육지로부터 해방된 요트에서 술을 자유롭게 마시며 지미는 자신이 “보헤미안”(D 47)이 된 듯한 착각을 한다. 그것은 「이블린」에서 이블린이 『보헤미안의 소녀』라는 연극을 보며 실현 불가능하지만 잠시 보헤미안이 될 것을 꿈꾸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현실은 환상과 다르다. 그 항구가 있는 킹스타운(Kingstown)은 1821년 영국의 조지 4세(George IV)가 요트를 타고 아일랜드를 떠난 것을 기념하여 원래의 아일랜드 이름인 “Dun Laoghaire”를 대체한 것으로(Torchiana 84), 영국에 대한 종속을 나타내는 곳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이름은 여기에서 열리는 카드 게임의 승리가 결국 영국인에게 돌아가고 아일랜드인은 패자가 될 것임을 던지시 암시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프랑스 음주가인 “까데 루셀(Cadet Roussel)”을 합창하여 부르며 후렴이 나올 때마다 발로 땅을 차면서 나아갔다”(D 47). 그런데 이 노래가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하게 되는 어리석은 젊은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시 후 지미에게 일어날 일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헝가리, 미국을 위하여 술을 마시면서”(D 47) 인종 / 민족간의 연대감을 보이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Cheng 108),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앞서 속도에 취한 것 못지 않게 술에 취한 지미가 긴 연설을 하고 스스로 “좋은 연설임에 틀림없다”(D 48)고 생각하는 것 또한 「진흙」(“Clay”)에서 지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숨기고 싶어하는 마리아(Maria)가 자기 멋대로 자신을 미화하는 것과 유사하다. 지미는 팔리가 그의 등을 치며 크게 웃는 것을 칭찬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다. 그리고 우매한 유

아처럼 단순하게 이들이 “얼마나 유쾌한 친구들인가! 이들은 얼마나 좋은 일행인가!”(D 48)하고 감탄하기도 한다. 그 날 밤 향구는 “어두운 거울처럼”(D 47) 늪혀져 있었는데 이 이미지는 자신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성찰이 결여된 지미를 암시하는 듯하다.

이어서 벌어진 카드게임에서 지미가 크게 지는 것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잃을 가능성이 암시되어 있다. 지미가 세구앙의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주요한 이유는 세구앙이 “명백히 부티가 났기 때문”(D 45)이라는 애매모호한 점 때문이었다. 또한 세구앙이 지미의 “아일랜드의 푼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순전히 “우정 때문에 보아준 것”(D 45)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애쓴 점(본문에 “managed”라는 단어는 그러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단서를 제공한다)에서도 세구앙의 교묘한 술책이 엿보이기 때문에 지미가 다시 투자 게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준다. 더구나 저녁 만찬에서 리비에르가 지미에게 프랑스 자동차 기술자들의 승리를 설명할 때 “전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D 46)고 한 부분에서 프랑스인들이 배후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풍긴다. 지미는 “사업 수완이 좋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D 45)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도 그와 마찬가지로 유럽대륙인들에게 아첨을 하고 싶어하고 그들 앞에서는 “제 멋대로 행동해보고 싶은 뭔지 모를 열망”(D 45)을 느낄 정도로 현기증 나는 가면극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미는 자신을 배신하고 이용할 지 모르는 외국인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다. 지미는 마지막 게임이 영국인과 프랑스인 사이에서 결판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아일랜드인인 자신은 실제의 역사에서도 그랬듯이 방관자의 입장에 서게 되고 결국은 패자가 될 것임을 알고 있다. 최종 승자는 역시 영국이었다.

그러나 게임은 더 이상 가면극이 아니고 엄연한 현실이었다. 지미는 점점 자신이 가면을 벗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다.

지미는 막연하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기지가 번득였지만 말이다. 푼돈이 많이 붙어났고 어음이 오가기 시작했다. 지미는 정확하게 누가 따고 있는지 몰랐지만 자신이 잃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다. 그는 자주 카드를 잘못 보고 실수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 대신에 그의 어음을 계산해 주지 않으

면 안 되었다. 그들은 끈질긴 대단한 친구들이었지만 이제 그만 두었으면 싶었다. 시간도 늦어지지 않았는가. (D 48)

여기서 그를 보아주고 들어주는 청중이 없다는 것은 첫째 그의 가면극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동시에 그로 하여금 지금까지 가면을 유지하도록 했던 영국 및 유럽대륙인들의 시선이 그에게서 거두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들이 지미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은 이 자리에 앉혀서 돈을 뺏어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지미는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나친 음주와 고도의 흥분으로 어음 계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다. 노리스(Margot Norris)는 이것을 사기극(swindle plot)이라고까지 말한다(24). 그녀에 의하면 정치를 토론의 주제로 끌어들이 지미와 영국인 라우쓰간에 “개인적인 원한”까지도 품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게 한 것은 전적으로 세구앙의 의도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판돈이 대담하게 커지고 어음의 거래까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23). 그러나 어디까지가 세구앙의 계획 때문이었고 어디까지가 지미의 어리석음과 허영심 탓이라고 할지 분명하게 선을 긋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커쉬너(R. B. Kershner)의 재미있는 표현대로 에블린(Eveline)이 “속수무책의 동물”(helpless animal)인 데 반해 지미는 “스스로 함정을 파는 동물(helpful animal)”이기 때문이다(72). 하지만 지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리스가 지미를 “강간의 희생자”(26)로 비유하는 것은 흥미롭다. 팔리의 요트는 지미의 도망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외떨어진 곳에 있고 그는 마취상태가 될 정도로 많은 술을 마셨다. 그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이제 그만 두었으면”하고 바라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지미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게임 판에서 많은 돈을 잃을 때까지 남아있어야 했다. 그것은 “끔찍한 게임(terrible game)”이었다. 피식민지인으로서 여성화된 아일랜드 남자들 중 한 명인 지미는 유럽대륙인들. 그리고 남성적인 스포츠맨들의 그룹에 속함으로써 자신도 남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또 인정받았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여전히 여성적 영역에 남아있었고 착취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세지윅(Eve Kosofsky Sedgwick)의 주장대로, 남성의 자격은 “강력한 남성적 유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185). 지미도 남성적인 무리들과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려 하였으나 배신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의 유럽 대륙 친구들은 지미에게서 돈뿐만 아니라 남성 사회의 입회자격(the membership in homosociality [Norris 28])까지 빼앗은 것이다.

강간의 비유를 좀더 유지시키며 논의를 진행해 보자. 지미가 당한 것은 어느 정도 강제적이었다고 할 것인가? 그는 항상 이미(always already)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있지 않았는가? 그는 처음부터 유럽대륙인들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는가? 즉 그는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서부터 이미 그들의 음모의 희생자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현실의 경기는 시작하기 전부터 끝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지미가 이것을 무시한 채 이상화된 자아와 허구적인 우정을 부여잡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이 시점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게임이 끝나고 “선실은 젊은이들의 환호로 흔들렸다”(D 48). 하지만 지미는 강간당한 희생자인양 어둠을 의지하며 탁자 위에 축 늘어져 있다.

그는 아침이 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휴식이 필요한 때였고 그의 우매함을 덮어 주는 어두운 무감각이 반가운 때이었다. 그는 두 팔꿈치를 탁자 위에 괴고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관자놀이의 맥박 수를 세고 있었다. 선실 문이 열리자 그는 헝가리인이 한 줄기 회색 빛 속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날이 샀어요. (D 48)

지미는 돈을 빼앗기고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한 현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어두운 무감각” 속으로 피신하고 싶어한다. 그의 “우매함”은 프랑스인들이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사람들로 잘못 믿고 있는 아일랜드인들의 것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그가 “어두운 무감각” 속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이유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자아를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진실에 대한 에피퍼니”(Bowen 60)는 빛과 함께 온다. 가면을 벗어야 하는 순간, 진실의 순간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알리는 사람은 빌로나이다.

그렇다면 그 빛을 가져오는 사람이 왜 헝가리인이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우선 그가 만족스러운 점심을 먹은 후에 기분 좋게 느낀다든지 지미의 아버지가 “외국인의 재예(foreign accomplishments)” [D 46]에 대한 진정한 존중심을 보여줄 때에도 오로지 저녁 만찬의 음식에 대해 “강렬한 식욕”을 느끼는 등 그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현실적이다. 그가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의 충

죽에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웬이 주장하듯이, “음식과 생존에 대한 빌로나의 좀더 기본적인 태도는 지미의 사회적 명성이라는 막연한 목적과 확연하게 대조된다”(60). 그리고 이 점에서 그는 지미와 대조적인 사람이고 비현실적인 가면 속에 숨어있는 지미를 현실로 불러내는 적임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빌로나가 피아니스트로서 예술가라는 사실도 고려해 볼 점이다. 물론 그를 다른 유럽대륙 인들과 한통속인 공범자로 보는 노리스 같은 비평가도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카드 게임을 시작할 때 “조용히 피아노로 돌아가서 즉흥곡을 연주한다”(D 48)든지 모두들 게임에 한참 몰두해 있을 때 혼자서 갑판으로 나간다는 점만 하는 점은 그가 거리 두기를 통해 현상을 멀리서 볼 수 있는 예술가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는 초연한 예술가로서 지미의 비현실적 우매함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이야기에서 각 개인은 나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빌로나가 헝가리인이라는 것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헝가리인이 아일랜드 사람에게 “새 날이 밝아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피스(Arthur Griffith)가 내세운 방식에 의한 아일랜드의 독립을 상기시킨다. 그리피스는 『헝가리의 부활』(*The Resurrection of Hungary*, 1904)이라는 소책자에서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 왕을 공유하지만 독립된 정부를 가짐으로써 자유국가로 부활하였듯이 아일랜드도 영국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이스도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율리시스』(*Ulysses*)의 「써시」("Circe") 에피소드를 쓸 때 이 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Manganiello 119). 다만 헝가리는 “새벽”을 맞은 자유국가가 되었지만 지미(그리고 그가 나타내는 아일랜드)는 계속 어두운 밤 속에 남아 있고 싶어한다는 점이 대조적이다.

이 이야기에서 가면무도회의 배우로서의 지미의 역할과 입장을 가장 잘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요트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즉흥적인 스케어 댄스”(D 47)를 하는데 이 춤은 원래 4명이 4각형의 형태를 이루어 춤을 추어야 한다. 그런데 빌로나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으므로 남자들의 숫자는 지미까지 포함하여 5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각형 대신에 “독창적인 도형들”(original figures [D 47])을 생각해내어 춤을 추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미가 빠져야만 정상적인 스케어 댄스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지미가 그 집단에서

잉여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얼마후면 배신을 당해 그들로부터 쫓겨날 운명이 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지미는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였다”(D 47). “열의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그들 사이에 끼고 싶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참여하였다”는 말 속의 “part”는 지미가 가면극 속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배역을 맡아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가 세구앙이 주최하는 만찬에 가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은 그가 그 역할을 맡기 위해 분장한 것이었다. 선실의 문이 열리고 무대의 조명이 아니라 새벽빛이 비추이기 시작할 때 지미의 환상세계는 해체된다. 그리고 그는 영국 및 유럽대륙 인이 아니라 피식민지인으로서, “기꺼이 억압받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있을 뿐이다.

(전남대)

인용문헌

- 민태운. 「조이스에 있어서 민족 / 민족어와 영어」. 『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9권 1호 (2003), 83-104.
- Arnold, Matthew. *On the Study of Celtic Literature and Other Essays*. 1910. New York: Dutton, 1976.
- Beck, Warren. *Joyce's Dubliners: Substance, Vision, and Art*. Durham: Duke UP, 1969.
- Bowen, Zack. "After the Race." *James Joyce's Dubliners: Critical Essays*. Ed. Clive Hart. London: Faber and Faber, 1969. 53-61.
- Cheng, Vincent. J.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French, Marilyn. "Missing Pieces in Joyce's *Dubliners*."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24 (1978), 443-72.
- Hart, Clive, ed. *James Joyce's Dubliners: Critical Essays*. London: Faber and Faber, 1969.
- Joyce, James. *Dubliners*. Eds.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Viking Press, 1969.
- _____. *Dubliners*. Eds. John Wise Jackson & Bernard McGinley. 3rd ed.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 Joyce, Stanislaus. *My Brother's Keeper: James Joyce's Early Years*. Ed. Richard Ellman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8.
- Kershner, R. B. *Joyce, Bakhtin, and Popular Literature: Chronicles of Disorder*.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989.
- Leonard, Garry M. *Reading Dubliners Again: A Lacanian Perspective*. Syracuse: Syracuse UP, 1993.
- Manganiello, Dominic. *Joyce's Polit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0.
- Norris, Margot. "Masculinity Games in 'After the Race.'" *Masculinities in Joyce: Postcolonial Construction*. Ed. Christine van Boheemen-Sasf, and Colleen Lamos. Amsterdam: Rodopi, 2001, 13-31.
- Renan, Ernest. *The Poetry of the Celtic Races*. Trans. W. G. Hutchison. London:

Walter Scott, 1897.

Sedgwick, Eve Kosofsky. *Epistemology of the Closet*.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0.

Torchiana, Donald T. *Backgrounds for Joyce's Dubliners*. Boston: Allen & Unwin, 1986.

Abstract

Masquerading of the Colonized in “After the Race”

Taeun Min

Joyce's “After the Race” is a story about the competition between races (ethnicity and nations) as well as about a sporting competition. Jimmy Doyle, the protagonist, is breathless, speedy, and excited throughout the story. He thinks that he will be lifted from the provincialism of Dublin life by allying himself with international companions. He fawns upon them, trying to attract their attention, so that this attention can authenticate the fiction of himself, his ideal self as a masculine cosmopolitan. His illusion is created by a dizzying ride in the car, by the exciting dinner party and by the card game, an illusion that he belongs to the group of the international companions rather than to his own colonized people. He also deludes himself into thinking that he is a masculine sportsman rather than an Irish man, feminized by a patriarchal colonizer. In order to cover his sense of Irish inferiority, he desperately holds on to this illusion until he finds himself fleeced and betrayed by those whom he has considered his emancipators. That night the city wears “the mask of a capital.” (The real capital, however, is London). But Dublin is not a capital, any more than is Jimmy a Continental playboy, but the idea of the masquerade and its attendant illusion permeates the story.

■ Key words : “After the Race,” race, masquerade, colony, the colonized, masculinity(「경주가 끝난 뒤」, 인종, 가면극, 식민지, 피식민지인, 남성성)